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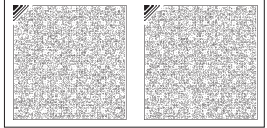
다 함께하는 사회구현

새보람

SAEBORAM

Voiceye Saeboram News

소리로 읽는 새보람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02)796-4280

www.kappd.or.kr

제260호

2014년 11월

HEADLINE

뉴스 2P

장애등급제 폐지 논란



뉴스 12~13p

제14회 전국지체장애인대회



인물 14P

우리 부부가 살아온 17년



국제 18P

장애인공주 애니메이션



지장협, 11월 11일 '지체장애인의 날' 기념식

‘자랑스런 지체장애인상’ 16명 수상



‘제14회 전국지체장애인대회’가 11월 1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렸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광환, 이하 지장협)는 지체장애인의 날인 11월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제14회 전국지체장애인대회’를 개최했다.

KBS 김성은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대회에는 전국의 지체장애인 지도자와 정의화 국회의장,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의원, 정두언 국회의원, 김정록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국회의원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 ‘자랑스런지체장애인상 대상(국회의장상)’은 18년간 장애인단체장, 장애인고용공단 이사, 장애인복지관 관장 등을 역임해오며 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해온 서울특별시지체장애인협회 손영호 협회장(지체장애 3급)이 영광을 안았다.

봉사대상(대법원장 표창)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힘

써온 시각장애인 변호사 최준원씨가 수상했다.

‘화합상(보건복지부장관 표창)’에는 경상북도 지체장애인협회 문경시지회 여일동 수석부지회장, 국제라이온스 354-E(강원)지구 이순용 여성위원장, ‘자립상(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장관 표창)’에는 대구광역시의회 김창은 의원, 전라북도지체장애인협회 순창군지회 김성근 회원이 선정됐다.

‘지도자상(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장관 표창)’은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안양시지회 강명선 지회장, 충청북도지체장애인협회 청주시지회 지현상 지회장, 충청남도지체장애인협회 청양군지회 이민우 지회장, 전라남도지체장애인협회 화순군지회 박현동 지회장,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청송군지회 조승철 지회장, 경상남도지체장애인협회 거제시지회 손복식 지회장에게 주

어졌다.

이밖에도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서경희 총무부장 외 3명이 ‘모범상(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고 지장협 최우수 협회와 최우수 지회에는 각각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와 전라남도지체장애인협회 영광군지회가 선정됐다.

지난 2001년 지장협은 11월 11일을 지체장애인의 날로 지정하고 매년 ‘전국지체장애인대회’를 개최해 지체장애인의 인권확보와 권리증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자랑스런 지체장애인상’을 시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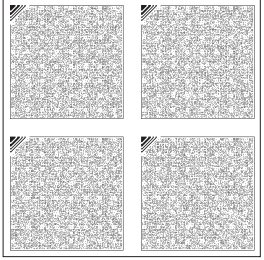
지장협 김광환 중앙회장은 이날 대회사를 통해 “이제 우리는 더욱 단결되며 사회에 기여하는 단체로 거듭나야 할 때이다. 장애인이 마음껏 활동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는 지장협, 도약하는 지장협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장애인당사자의 사회참여의지와 확대를 역설했다.

한편 이날 행사장 주변에서는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장애인문화예술작품 전시 및 지체장애이해 인쇄물 배포, 장애인차별금지손서약서 만들기 캠페인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진행됐다.

장애판정체계 개편 연구결과 간담회

장애등급제폐지 대안 난항

소리로 읽는 새보람



11월5일 이룸센터 이룸홀에서는 '장애판정체계 개편 연구결과 간담회'가 진행됐다.

지난 11월5일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진행된 '장애판정체계 개편 연구결과 간담회'가 또다시 관련기관과 단체들의 의견차만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간담회는 은종군 정책홍보국장(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사회로, 김성희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변경희 교수(한신대학교)의 연구결과에 대한 발표로 진행됐다. 의학적 평가 부분에서 참석하기로 했던 이경석 교수(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와 고영진 교수(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는 진료가 있다는 이유로 불참했다.

먼저 김성희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장애종합판정체계 개편 도입안은 사회환경적 요인과 육구 등을 반영한 종합적인 사정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마련에 목표를 두고 있다.

절차는 먼저 의학적 요인 영역으로 장애등록유무를 판정하고 다음 단계에서 사회환경적 요인영역을 종합판정해 서비스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

서비스 최종단계는 장애인에 대한 사례관리 시스템의 운영을

기본으로 상정하여 모니터링 단계를 통해 사후관리를 지원한다.

발표예정자는 불참했으나 먼저 의학적 요인 평가 기준표를 살펴보면 우선 15개 장애유형의 틀은 그대로 유지되며 6개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1점에서 10점 까지 있는 점수 부여 방식으로 개편되는 방안이 연구됐다.

두 번째 단계인 사회환경적 요인 영역에 대한 판정도구는 변경희 교수(한신대학교)가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장애종합판정도 구 조사표 구성을 기본정보영역,

복지육구영역, 서비스필요도(62개 항목) 영역, 개인별 서비스 제공 계획 영역으로 나뉘었다.

영역 1의 특징은 세부장애유형을 체크하여 같은 집단장애인이라도 세부 부위에 따라 구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영역2는 사회환경영역으로 가구구성, 주거상황, 사회활동상황, 교육활동상황, 근로취업, 건강상태, 경제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영역3은 일상생활 평가(26개 항목), 장애특성(26개 평가), 재활평가(17개 평가)를 거쳐 서비스이용여부의 기준이 된다.

연구 결과발표가 끝나고 이어 진행된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묻는 시간이 진행됐다.

이 시간에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대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남병준 정책실장,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찬우 사무총장,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강민 사무총장 등의 질의와 토론이 이어졌다. 장애인단체들은 대체적으로 장애판정에 대한 고민 이전에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체계마련과 예산확보 등 선행과제를 언급했다.

또한 현재와 같은 단순 등급제를 점수제로 바꾸는 형태의 의료적영역의 개편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여 장애등급제 폐지와 대안 마련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예산 1조 8,916억원

지방이양 되었던 장애인거주시설(4,085억원) 국고환원

2015년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분야 예산은 총 1조 8,916억원으로 2014년 1조 3,186억원 대비 5,732억원(43.5%) 증액됐다.

먼저 장애인연금에 2014년 4,660억원에서 5,618억원으로 958억원, 20.6% 증액됐다. 지원대상은 364천명에서 358천명(소득하위 70%)으로 조정됐고 기초급여는 20만원에서 20.4만원으로 증액됐다.

장애수당(기초 및 차상위 등)은 1,313억원으로 전년

대비 257억원, 24.3% 증액됐다. 지원대상은 356천명으로 전년과 동일하고 장애수당은 4만원으로 전년대비 1만원이 올랐다.

이외에도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4,285→4,679억원으로 증액됐다. 장애판정체계 개편 시범사업은 신규사업으로 11억원이 배정돼 운용될 예정이며,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사업은 지방이양 되었던 사업이 국고로 환원되면서 4,085억원이 배정됐다.

1987년 9월 1일 창간 월간 새보람 제260호 2014년 11월 25일

회 장 · 발행인 / 김광환 편집장 / 오창석 발행처 / (사)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3층

등록번호 / 영등포 라 00280

홈페이지 <http://www.kappd.or.kr> E-mail : kappd@kappd.or.kr

대표전화:(02)796-4280 FAX:(02)796-4281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한국수어법 제정 촉구

궐기대회 이후 무기한 천막농성 돌입

한국농아인협회(회장 변승일)는 11월 11일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300여명의 농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수어법 제정 촉구 전국농인 총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농인들은 이 자리를 통해 "농인은 음성언어인 한국어를 대신하여 한국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수어 사용 환경이 미비하여 한국수어를 기반으로 하는 의사소통·정보이용·학습 등에 많은 제약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결과는 농인으로 하여금 교육, 취업 및 일상생활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겪게 만들고 있어 사회적 소외계층이 되게 하는



11월11일 이룸센터 앞에서는 '한국수어법 제정 촉구 전국 농인 총 궐기대회'가 개최됐다.

요인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한국수어법제정을 통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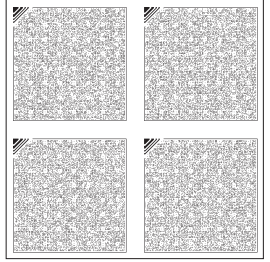
'한국수어가 한국어와 구별되는

고유한 자격의 공용어임을 선언

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수어

를 통한 의사소통 및 정보제공의

소리로 읽는 새보람



기반을 마련하여 농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활동의 참여를 증진'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법안은 지난 2013년 10월 22일 새누리당 이예리사의원에 의해 국회에 발의됐다. 그러나 한국수어법이 발의된 지 1년 1개월이 지났음에도 '한국수어법' 제정을 위한 국회 내의 적극적인 논의는 요원한 실정이다. 이에 한국농아인협회는 '한국수어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11월 11일 '한국수어법 제정 촉구 전국농인 총 궐기대회'이후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종합재활교육훈련시설 개관

장애인의 체육활성화 및 재활훈련교육 전문화

국립재활원(원장 이성재)은 10월31일 국립재활원 나래관에서 윤현덕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 오영식 국회의원, 관계기관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

운데 개원 28주년 기념 및 장애인종합재활교육훈련시설(나래관) 개관식을 개최했다.

나래관은 연면적 12,464㎡에 재활체육관, 사회복지체험실, 로

봇연구실, 장애체험장, 장애인온전교육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2011년 착공 후 약 200억원이 투입되어 3년여의 공사 끝에 완공되었다.

나래관이란 뜻은 '그런 듯이 아름다운 날개'라는 뜻의 순수 우리말인 '그린나래'에서 따왔다.

이날 행사는 경과보고, 유공자 포상, 라운딩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그간 국립재활원은 국가 중앙재활기관으로서 재활의료·연구·교육을 수행해 왔는데, 이번 장애인종합재활교육훈련시설인 '나래관'의 개관으로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행복한 삶의

실현이라는 국민적 사명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국립재활원 나래관 개관이 '장애인과의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보건복지부의 정책방향과 일치한다."며, "나래관이 향후 대한민국 장애인재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각계에서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사설

고쳐지지 않는 매스컴의 장애비하

국가인권위원회는 언론보도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정 관념이나 편견을 만들 수 있는 지칭이나 속담, 관용어가 사용되지 않도록 장애비하 표현에 대한 관행 개선 의견을 밝히고, 주요언론사에 기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보도준칙' 등의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정부부처에도 장애인 비하표현이 사용되지 않도록 관심과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인권위의 발표를 무색하게 만드는 사건이 발생했다. 농구경기 중 계 도중 나온 해설가의 장애인 비하 발

언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 인식의 모습을 온전히 보여주고 말았다.

각종 매체에서 표현되는 장애인에 대한 왜곡된 시선이나 편견은 언론사의 문제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하철에 있는 휠체어석에 대한 배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역사, 법정 대수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는 저상버스, 정부나 공공기관의 장애인고용률 미달 등은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못할 것이라는

선입견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

한동안 아이들과 인터넷에서 많이 회자되었던 "애자"라는 표현도 "장애인"이라는 단어에서 앞 글자만 뺀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이었다. 모 해설가의 장애인이라는 발언은 학생들 사이에서 흔히 오가고 있다. 무언가 부족하고 못하는 모습을 보며 마치 육설처럼 내뱉는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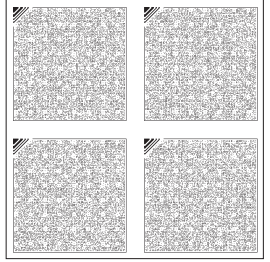
현재 모든 학교에서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단체와 장애인복지시설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장애체험 등의 교육을 하고 있지만, 정작 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은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나 언론 등이 되어야 한다. 어른이 먼저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추고 있어야 아이들이 배울 것이다.

지난 시간, 언론에서의 장애비하 발언은 장애인단체 등에 의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절름발이, 불구자, 장님, 병어리 등의 용어에서 "한자장애인"이라는 표현까지 매년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사과만 되풀이하고는 고쳐지지 않는 매스컴의 장애인의 부정적 인식이나 편견은 인권위의 의견 표명만으로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보다 실효성이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이로 인해 그간 국가유공자와 등록 장애인 간에 복지서비스 격차로 인한 국가유공자 등의 불만족을 해소하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복지체감도가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전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 점검 실시

공공기관 및 민간시설 5,900개소 대상



지장협 소속 지체장애인의시설지원센터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소속 지체장애인의시설지원센터 원센터(중앙센터장 김광환, 이하 편의센터)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10월 28일부터 11월 22일까지 전국 행정기관, 주민센터, 장애인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고속도로휴게소, 병원, 호텔 등 장애인 이용이 많은 공공기관 및 민간시설 5,900개소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점검항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적정 설치, 불법 주차 여부, 주차 표지 불법 사용 등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우수 및 부실관리 시설 명단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거나 장애인 자동차 표

지를 부착했다더라도 보행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차량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는 2010년 8,992건, 2011년 2만7,463건, 2013년 5만 2,949건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편의센터 홍현근 국장은 "지속적인 점검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에 대한 인식 개선은 물론 적극적인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방지 대책 마련

복지부, 사전예방 및 조기발견, 처벌강화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시설 인권상황에 대한 점검 및 사례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보호 강화대책'을 마련하여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시설입소 장애인의 심각한 인권침해사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에 적극 나선다.

인권실태조사는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602개소(입소자 및 종사자, 시설 환경 등)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조사로 실시됐다.

실태조사 결과 44개 시설에서 주요 인권침해 의심사례가 발견되어, 8개 시설에 대하여는 수사의뢰하였으며,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한 3개 시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였다.

또한, 인권침해 의심사례를 포함하여 안전 및 편의시설, 청결상태 등 시설운영 및 환경 부분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1,400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되었으며,

854건(61.0%)은 시정 조치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지적사항도 조치 진행 중에 있다.

인권실태조사 사례를 토대로 수립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보호 강화대책'은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었으며, 만일,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조기발견 및 신속한 구조체계" 마련 및 "종합적인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인권침해 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처벌"하는 등 입소 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사전 예방

우선, 시설별 '인권지킴이단' 과반수를 외부 인력풀(변호사, 공공후견인후보자 등)로 전면 재구성 하는 등 외부감시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지자체에서는 시설별 인권지킴이단 과반수를 복지부에서 제

공한 변호사, 공공후견인후보자 인력풀과 자체모집한 인권전문가, 지역주민 등으로 지정하고, 시설 자체에서 구성할 수 있는 인원은 입소자 및 보호자, 종사자 등 3명 이내로 제한한다.

시설장 및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도 대폭 강화된다.

특히, 복지부 주관으로 연 2회(상·하반기) 전국 시설장 및 사무국장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예방 집합교육을 실시하는 등 시설관리자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년 중으로 인권침해 의심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의심시설로 나타난 시설에 대하여 '지자체-경찰청'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시정조치사항 이행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별점검 후에는 경찰공무원 등을 통한 '학대 등 범죄예방 교육'으로 인권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예정이다.

입소자의 위해(危害)행위 등에 대한 조치 매뉴얼도 개발한다.

조기 발견

인권실태조사 전문조사원을 양성하고, 시설에 대한 연중 상시 조사체계를 확립한다.

금년도 인권실태 전수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조사원의 전문성 및 자질 논란, 인력부족 문제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실태조사 전문 조사원(180명 이상)을 양성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전문조사원 인력풀을 활용하여 매년 특정기간 지정 없이, 약 200개소의 시설에 대한 인권실태조사를 불시에 실시한다.

시설 내 학대 등 인권침해 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내부신고 활성화도 적극 도모할 예정이다.

시·도별로 '지자체-경찰청-변호사-인권전문가' 등으로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보호전문기관 등 법적 전담기관이 설치·운영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전담팀을 운영한다.

종합 보호

피해자 종합 보호체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장애인 보호전문기관 및 피해 장애인 쉼터 설치를 추진한다.

우선, 관계 법령을 개정하여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보호전문기관 설치를 통해 24시간 상담전화, 피해현장 출동 및 현장조사, 구조 활동 등을 수행한다.

또한, 피해자 쉼터를 설치하여, 피해자에 대한 의료·법률지원 연계 등 체계적인 사후보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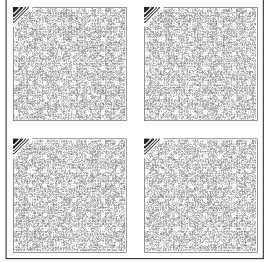
처벌 강화

법령 등을 개정하여 학대 등 인권침해 발생 시설 및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우선, 장애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확대 적용하고, 처벌 규정도 아동복지법에 준하도록 신설한다.

인권침해 발생시설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되고, 특히, 행정처분 외에 최대 1년간 운영비 감액(기본급 10% 삭감) 지원 등 재정적 불이익 조치로 종사자에 대한 연대책임도 함께 물을 예정이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2014 제4회 장애청소년 Best Friend 시상식 개최

장애청소년 베스트프렌드 20팀 표창

(사)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회장 조항현, 이하 '장고협')는 11월 15일 이룸센터 누리홀(서울 여의도 소재)에서 장애청소년 Best Friend로 선정된 전국의 중·고등학생과 가족, 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장애청소년 Best Friend 시상식(이하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장고협이 주최하고 고용노동부가 지원한 이번 시상식은 학교 내 장애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을 돕고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에 모범을 보여준 비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특수교육 및 장애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총 20팀(개인 17명, 단체 3팀)을 선정, 협회장 표창과 더불어 부상(20만원 상당)을 수여하였다.

표창을 수상한 강원 봉평고등학교 한정우 학생은 활동수기 발표에서 "자폐장애를 가진 친구



베스트프렌드시상자들과 주요내빈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의 도우미 활동을 시작할 땐 친구 구라기보다는 동생 같은 존재로 생각했었는데 친구가 되고 가까워 지면서 내가 생각을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친구는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많고, 생각만큼 약하고 예리지도 않았으며 우리와 똑같은 감성을 가진 친구라는 걸 알았다. 그동안 장애라는 것

에 대해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은 편견이었고 무지였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밝혀 베스트프렌드 활동이 청소년이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표창대상 학생을 추천한 한 학교의 담임 선생님은 "베스

트프렌드 활동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면 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일반 학생들과 함께 교육을 받고, 차후에 학교를 졸업하여 사회에 진출했을 때에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히 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더 많은 친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베스트 프렌드 활동이 더 활

성화 되고 이런 친구들을 격려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더 확대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사업담당팀장인 이은주 사회복지사는 "선생님들의 추천서와 활동수기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점차 긍정적으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며 이러한 변화를 발판으로 미래에 노동현장이나 사회속에서 차별 없이 모두가 함께 일하고 함께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시상식과 더불어 「2014 장애인 고용지원 인식개선 문화제」에서 입상한 작품들을 함께 전시하여 장애인도 다양한 가능성을 가진 근로주체임을 사회에 알리고, 사회전반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였다.



11월15일 장애인 맞선 이벤트 솔로탈출119가 진행됐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광환, 이하 지장협)가 11월 15일 여의도 루게르호텔에서 장애인 남녀 맞선 이벤트 '솔로탈출 119'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40여명의 남녀가 참가했다. 이들은 자기소개와 대화의 시간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고 다양한 커플게임을 함께하며 마음에 드는 이성의 마음을 확인했다.

장애인맞선 이벤트 '솔로탈출119'

성혼커플 노하우 공개 등 다채로운 진행

그 결과 두 커플이 인연을 맺었다.

한편 솔로탈출 119를 통해 성혼에 결인한 2커플이 초대되어 연애담과 결혼 후 변화된 삶에 대해 조언해주는 시간을 가졌다.

2012년 본 행사에서 만나 2013년에 결혼한 커플은 "처음엔 기대 반 의심 반으로 행사에 참여했다. 하지만 좋은 만남과 연애를 이어가면서 결혼까지 하게 됐고 올해 아이도 출산하면서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결혼생활의

삶의 변화에 대해 소개했다.

또 다른 성혼 커플은 "처음에는 사실 이뤄지지 않았다. 행사가 끝나고 전화번호를 물어 만남을 갖게 됐다. 무엇보다 자신감과 용기가 있다면 더욱 좋은 만남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며 노하우를 공개했다.

한 남성 참가자는 "커플 맺기에 어렵게 성사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좋은 만남과 즐거운 시간이었다."며 내년행사에 다시 신청할 수 있

는지를 확인하고 "이런 행사가 더 많아지고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고 참가소감을 전했다.

지장협 관계자는 "이성을 만나 결혼하고 부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또 다른 행복과 삶의 기쁨을 느낄 수 있다. 장애인에게 이러한 소중한 삶을 만들어 드릴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행사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장애인 고용정책의 새로운 대안을 찾다

제6회 장애인고용패널 학술대회 개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박승규, 이하 공단)은 11월 7일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소재)에서 한국장애인복지학회 등 관련 학회와 공동으로 '제6회 장애

인고용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장애인고용패널 학술대회'는 공단에서 실시하는 '장애인 고용패널조사'와 '기업체 장애인

고용실태조사',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개최하는 것으로, 2009년에 시작돼 올해 6회째를 맞이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장애인 고용 정책의 새로운 대안 모색'이라는 주제의 기획주제 세션을 포함해, 총 5개 주제발표 세션에서 14편의 논문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올해 대회에서는 기획주제 세션이 신설돼 고려대학교 김태일 교수와 한국고용정보원의 박상현 연구위원이 각각 '장애인 지원 기준으로서 장애등급제의 타당성 분석 및 향후 방향',

'장애인의 팬츠는 일 자리(Decent Job) 특성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는 등 깊이 있는 논의가 펼쳐졌다.

공단 박승규 이사장은 "이번 대회는 여느 때보다 알찬 발표와 토론이 진행돼 장애인고용패널 학술대회가 한단계 도약하는 전환점이 됐다"며 "발표자와 토론자로 참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경기지장협, 채용박람회 개최

구직장애인들의 자립의지 불게 물들여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김기호, 이하 경기지장협)는 10월 23일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광고홀에서 기능장애인 및 구직 희망장애인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2014 경기도 기능장애인 채용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번 개회식에는 김기호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장, 원미정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강윤구 경기도사회적일자리과 과장, 김현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사장, 신동진 경기도농아인협회장 등이 참



채용박람회에 참여한 주요내빈들이 테이프커팅식을 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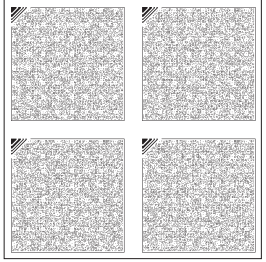
석하여 구직장애인과 사업주들을 격려했다.

이날 박람회에는 기능인력 채

용을 희망하는 32개 도내 우수 사업체에 장애인 기능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

으며, 600여명의 기능장애인 및 구직희망 장애인이 참여해 가을 현장의 열기를 불게 물들였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또한 구인기업과의 현장 면접 이외에도 시각장애인 헬스키퍼 시연, 네일아트 체험, 화훼장식 체험, 케리커처 체험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되어 행사장을 방문한 장애인 구직자들에게 문화체험기회도 제공했다.

이외에도 직업재활 상담(수원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취업지원패키지 사업(스텝스) 등의 사업 설명을 통해 다양한 직업재할 및 구인정보를 제공했다.

장애인단체 종사자 역량강화 및 정보교류

장애인복지현장의 실무활용 의지 다져



워크숍참가자들이 교육 수료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이재홍, 이하 광주지장협)는 2014 장애인단체(기관)종사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10월16일 1박2일의 일정으로 전남 나

주중흥골프드&리조트에서 개최했다.

교육내용은 광주광역시 노인장애인복지과 이영민과장의 첫 번째 강의를 시작으로 2강 공인

노무사 진재영 대표, 3강 한국인재양성센터 교육이 진행됐다. 이어 편의증진법 강의를 통해 알기쉬운 편의시설에 관련 매뉴얼 교육이 실시됐다.

교육에 참가한 단체 실무자는 "장애인 단체(기관) 종사자 대상의 본 교육을 통해 사회복지행정의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단체(기관) 종사자간의 친목도모와 정보교류의 장도 만들 수 있어 장애인복지현장에 실질적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며 참가의 의미를 더했다.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한마음 대축제 5쌍의 중증장애인 합동결혼식



합동결혼식에 참가한 중증장애 부부들이 결혼행진곡에 맞춰 힘찬 전진을 하고 있다.

부산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김광표, 이하 부산지장협)는 11월 13일 부산시민공원에서 '2014년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부산장애인 한마음대축제 및 중증장애인 합동결혼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의 인권향상 및 사회참여 기회확대, 장애인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관심 제고를 위한 것으로 부산지역 16개 구·군지회 장애인 3000여명이 참석해 축제를 즐겼다.

식전행사로 해군작전사령부 군악대와 경찰청 홍보단 포돌이의 축하공연이 진행됐다. 이어 1부 행사에서는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과 중증장애인부부 5쌍의 합동결혼식이 열렸다.

2부 행사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화합한마당으로 노래자랑과 체육대회, 행운권추첨 및 시상식으로 행사가 마무리되었다.

이날 결혼식을 올린 중증장애인 부부는 "비록 늦었지만 이런 뜻 깊은 자리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어 한없는 감동을 느낀다.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며 결혼 소감을 전했다.

특히 70세 나이에 결혼식을 올리게 된 임채식 문정옥 부부는 "인생의 황혼기에 의미 깊은 시간을 갖게 해 주신 부산지체장애인협회에 너무나 감사함을 전한다."고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5쌍의 부부는 주최 측의 후원으로 곧 신혼여행도 떠날 예정이다.

지체장애인의날 기념 대구지체장애인대회 개최 사회통합을 위한 한마당 축제로 열려

지체장애인의 날을 기념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생활을 염원하기 위한 「지체장애인의 날 기념 대구지체장애인대회」가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회장 김창환, 이하 대구지장협)의 주관으로 11월 7일 인터볼고엑스포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대구지체장애인대회’는 지

체장애인, 가족, 자원봉사자 등 600여명이 참가해 대구지역 지체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한 한마당 축제로 열렸다.

기념식은 '지체장애인의 날 제정 취지문' 낭독으로 시작해 장애를 극복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헌신 봉사한 유공자(한국지체장애인협회장 표창장 등

35명)와 우수지회(최우수지회 수성구, 우수지회 서구·남구) 표창 수여 및 후원금전달식(국제로타리3700지구, 대구경성라이온스클럽) 등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사회참여로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지체장애인의 의지를 다지는 행사로 진행됐다.

또 축하공연과 장기자랑대회를 겸한 2부 행사는 그동안 숨겨왔던 지체장애인들의 흥과 끼를 발산하는 무대로 채워졌고, 서구지회에서 장기자랑 최우수상의 명예를 안았다.

인생의 2막, 10쌍의 신랑신부

경남지장협, 장애인합동결혼식 및 가요제 개최

경상남도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이상식, 이하 경남지장협)은 제16회 경남장애인합동결혼식을 11월 5일 창원문성대학교 문성체육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결혼식은 여러 사정으로 지금까지 예식을 올리지 못한 10쌍의 장애인부부가 참가해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렸다.

이번 합동결혼식에는 이성용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장을 비롯한 이동규 경남도 장애인복지과장, 이순삼 경남도지사 부인 등 내외빈과 하객 600여명이 참석했다.



10쌍의 부부들이 합동결혼식을 올리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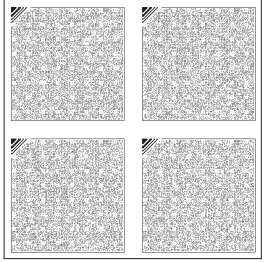
오전 10시 30분에 창원대학교 관현악단 축하공연으로 시작된

결혼식은 표창장 수여 및 장학금 전달, 화촉점화, 혼인서약, 주례사

순으로 진행됐으며, 2부 순서로 20개 시군의 지체장애인협회 회

원들이 참가한 가요제가 열렸다. 경남지장협 이상식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부부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함께 힘을 모아 헤쳐 나가야 하며 항상 기쁜 마음으로 서로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날 주례를 맡은 김종규 경남지체장애인협회 후원회장은 주례사를 통해 “오늘 희망을 안고 인생의 2막을 여는 신랑신부의 가정에 무한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란다.”며 부부의 화목과 행복을 기원했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SK 행복나눔재단, 사랑의 김치 나눔

경북지장협 포항시지회, 중증장애인에게 전달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포항시지회(지회장 이경목, 이하 경북지장협 포항시지회)가 SK행복나눔재단(이사장 최기원)으로부터 11월14일 행복김치 30통(총 300kg)을 전달받았다. 행복김치 나누기는 SK그룹이

매년 진행하는 연말 사회공헌 캠페인의 일환이다. SK측은 올해 총 8만3000포기의 김치를 전국 800여 사회복지기관과 사회취약계층에 나눠줄 계획이다.

경북지장협 포항시지회 이경목 지회장은 “추운 겨울을 앞두고 지

역의 장애인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성원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지역 장애인 중에서도 생활형편이 어려운 독거노인이나 중증장애를 앓고 있는 가정에 최우선적으로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경북지장협 포항시지회가 행복김치를 전달받았다.

충남지장협, 주차질서 확립 위해 앞장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실시



충남지장협 관계자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을 펼치고 있다.

충남지체장애인협회 천안시지회(지회장 유재원, 이하 충남지장협 천안시지회)는 충청남도편의시설 설치도민족진단과 함께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적정설치 여부 및 장애인전용주차

구역 위반차량 신고와 홍보사업을 펼치고 있다.

복지 일자리 참여자에게는 사회참여 기회와 자립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복지실현 사회참여확대를 유도하게 된다.

또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홍보 및 계도를 통해 장애인들의 전용 주차 공간 보장과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에 이바지 하고 있다.

충남지장협 천안시지회는 충청남도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 1위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주1회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장애인의 눈높이로 바라보는 공감나들이

노원의 구의원들과 함께 한 ‘장애체험 세상밖으로’



장애체험에 참가한 구의원 등이 휠체어에 앉은 채 영화표발권 체험을 하고 있다.

을 체험하는 귀중한 시간이 됐다.”며 장애체험의 느낌을 전했다.

마은주, 김은화 의원은 “휠체어에 앉아 영화티켓을 발권해보니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많아

개선할 여지가 있음을 알았다.”며 장애인의 불편사항에 대해 논했다.

김용우 의원은 “별도의 대형 회전문이 없는 쇼핑물 입구를 휠체어에 앉은 채로 출입하면서 많은 힘이 들게 됨을 알았다. 쇼핑물의 적극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며 편의시설에 대한 열악한 인식을 아쉬워 했다.

이번 체험행사를 진행한 담당자는 “구청 및 구의회에서 장애인과 관련한 복지정책 구현 및 조례 제정에 있어 조금만 더 장애인의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배려하는 토대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전국장애학생댄스경연대회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의 어울림대회를 통해 편견 해소



전국장애학생댄스 경연대회 참가팀이 댄스경연을 펼치고 있다.

대구광역시달구벌종합복지관(관장 강재형, 이하 달구벌장북)은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지원으로 지난 17일 달구벌종합복지관 강당에서 제4회 대구광역시교육감배 전국장애학생댄스경연대회를 개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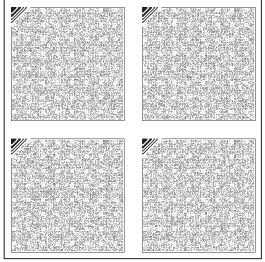
장애인의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발굴하고 댄스를 통한 장애인의 문화예술 및 여가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는 장애학생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어울림댄스 순수장애학생으로 구성된 장애인팀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전국에서 총

30개 팀 500여명이 참가하여 열띤 경연을 펼쳤다.

특히 부문별 입상한 참가팀에게는 대구광역시교육감상 및 트로피와 1위 70만원, 2위 50만원, 3위 30만원, 장려상 20만원, 노력상 10만원, 격려상 10만원, 지도자상 10만원 등의 상금이 수여됐다.

달구벌장북 강재형 관장은 “올해로 4회째 맞이하는 대구광역시교육감배 전국장애학생댄스경연대회는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의 서로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

소리로 읽는 새보람



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장애학생의 성취감 획득 및 자신감을 강화하고 장애학생의 잠재되어 있는 능력개발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며 대회개최의 의미를 밝히고 “장애학생들이 자신들의 끼를 발휘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무대가 더욱 많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대회발전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경북지장협 울진지회, 시낭송 수업 진행

전국 글·사랑 성인시낭송대회참가, 우수상 수상



울진군지회 시낭송수업을 받은 수강생이 전국성인시낭송대회에 참가해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경북지체장애인협회 울진군지회(지회장 장무광) 울진군여성자립지원센터에서는 문예고리 사업으로 시낭송 수업을 2014년 3월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2시간씩 울진군복지회관에서 진행해왔다. 이에 지난 10월 17일 서울 도봉구민회관에서 개최된 제23회 전국 글·사랑 성인시낭송대회에 참가하여 발군의 성적을 거뒀다.

특히 울진군지회 대표로 여성자립지원센터 이외숙 단장이 “불후의연가”로 우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뤄 장애를 가진 모든 여성회원들에게 본보기가 된 계기를 마련했다.

장동진(시낭송가) 강사로 진행된 시낭송 수업은 처음 출장하는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보이는 등 좋은 결과를 보임에 따라 향후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기회 마련의 장

한마음 가족운동회 개최

용인시치인장애인복지관(관장 정의철, 이하 용인치인장북)은 11월 10일 용인실내체육관에서 복지관 이용고객 및 자원봉사자 300명이 함께하는 “한마음 가족운동회”를 개최했다.

작년에 이어 2회째를 맞이한 “한마음 가족운동회”는 행운권 추첨을 시작으로 공굴리기, 릴레이계주, 레크레이션 등 다양한 종목들을 함께하며 참여자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어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한마음 가족운동회가 성황리에 마치게 되기까지 복지관 두리하나 봉사단, 해밀후원회, 복지관 부모회, 바르게살기운동 용인시협의회, 농협중



한마음 가족운동회 참가자들이 경기에 임하고 있다.

양회 용인시지부, ‘여럿이 함께’ 경기도립무용단 등 지역사회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그 의미를 더했다.

용인치인 장북 관계자는 “추워지는 날씨에 ‘한마음 가

족운동회’에 참여한 장애인들이 어느 때 보다 따뜻한 마음들을 느끼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라며 대회의 의미를 전했다.

대구남구와 광주남구의 영호남 화합한마당

영호남지역갈등 해소 및 장애인식개선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남구지회(지회장 노경남, 이하 대구지장협 남구지회)에서는 10월 23일 대구시 앞산일대에서 지역장애인회원 200여명과 광주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남구지회(지회장 김선숙) 지역 장애인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15회 영호남 화합한마당

을 개최했다.

이날 제15회 영·호남 화합한마당 교류대회는 통기타 & 색소폰 & 아코디언 연주회와 행운권 추첨, 케이블카 탑승 및 앞산 공원 승전기념관 관람 행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마지막 순서로는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남구지회가 최근 건립하여 운

영중인 남구장애인재활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관람했다.

대구지장협 남구지회 노경남 지회장은 “이번 행사는 15년째 이어오고 있는 영·호남화합한마당 교류대회로 지역갈등 문제가 항상 대두되고 있는 지역에서 우리 장애인들이 먼저 영남과 호남을 오고 가면서 교류를 통해



제15회 영·호남 화합한마당 교류대회에 참석한 주요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친목을 다지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비장애인에게 모범을 보이며 앞서나가는 화합의 장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15회 영·호남화합한마당교류대회는 대구시남구청이 후원했다.

유성장복, 2014 사랑나눔대행진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에게 감사의 마음 전해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손성도, 이하 유성장복)은 11월5일 유성구지역장애인을 위로하고, 한 해 동안 마음으로 봉사하신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2014 사랑나눔대행진”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허태정 유성구청장을 비롯한 관련 내빈과 800여명의 이용자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자원봉사대상 시상 및 감사패전달 등이 이어졌다.

2014년 유성구장애인자원봉사대상 수상자는 유성구장애인주부자원봉사단원인 안광희 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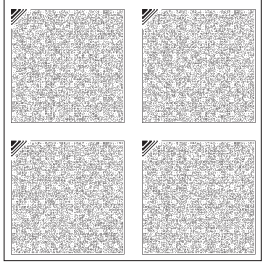
가 영예를 안았다. 안광희씨는 1998년부터 장애인 단체와 유성구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을 비롯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헌신적인 봉사활동과 후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날 행사에는 한전원자력연료(주), 국민은행폴센터, 국민연

금공단 대전지역본부, 국민은행 반석동지점, 코오롱제약 대전공장, ㈜코스트로 코리아 대전점 등의 후원으로 저소득 장애인 700가정에 쌀 4kg씩을 전달하는 사랑의 쌀 나누기도 함께 진행됐다.

문화행사로는 장애인노래자랑 경연이 진행됐고 대전연정국악

소리로 읽는 새보람



문화회관 공연단의 사물놀이와 춤 공연과 초대가수 박성량씨, 최수화씨의 무대가 진행되었습니다. 아울러 야외 부대행사로는 장애인보장구 무료수리와 장애인 자동차 무상점검이 진행됐다.

서울북부장복, 제7회 노원구 미술전

‘나눔과 소통의 미학(美學)전’ 개최



나눔과소통의 미학전 참여작가 및 관계자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1월 4일 서울시립북부장복(관장 손영호, 이하 북부장복)은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 커뮤니티 갤러리에서 제7회 노원구장애인미술전 ‘나눔과 소통의 미학(美學)전’ 개장식을 진행했다.

11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된 노원구장애인미술전은 삼성카드 열린나눔 시즌5 TOP7에 선정되

어 삼성카드(주)와 아이들과 미래의 후원으로 북부장복 ‘미예찬’ 동호회 미술작가들의 창작 발표회장이 마련되었다.

개장식에 참석한 노원구의회 김승애 의장은 “장애인과의 지역 주민의 문화적 공감과 소통의 장이 마련됨을 축하한다”며 축하를 전했고, 삼성카드 사회봉사단은 열린나눔을 통해 장애인 문화

예술 발전의 지속적인 후원을 약속했다.

‘나눔과 소통의 미학(美學)전’ 노원구장애인미술전은 노원구 지역 내 장애인 예술작가들과 지역주민이 함께 어울리는 문화의 장으로써 이번 미술전을 시작으로 12월에는 노원구청에서 2차 미술전이 진행될 예정이다.



부모소통 감정코칭 참가자들이 강의를 경청하고 있다.

장애·비장애 아동 부모소통 감정코칭

자신의 양육태도를 점검하고 올바른 방법을 익히는 계기

영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이제근, 이하 영천장복)에서는 지난 10월 22일 자녀를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감정표현 방법에 대한 부모교육을 실시했다. ‘장애·비장애 아동 부모소통 감정코칭’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교육에는 지역의 학부모 20명이 참석했다. 대구대학교 재활심리학과 박지순 교수의 강의로 올

바른 양육방법과 소통 및 감정코칭에 대한 이론교육과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교육에 참석한 한 어머니는 “자녀 양육·감정 표현 방법에 대한 테스트를 통해 평소 인식하지 못했던 스스로의 양육태도를 알 수 있었다. 보다 올바른 양육 방법을 익히고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참가소감을 전했다.

아빠와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

장애아가정 스트레스 해소 및 가족기능향상

충청남도남부장복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임대혁, 이하 충남장복)은 건강한 가족 만들기의 일환으로 아빠와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를 11월 23일(일), 12

월 06일(토), 12월 13일(토) 3회기로 마련한다.

아빠와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는 현재 장애인자녀를 키우고 있는 가정과 장애를 가진

부모를 대상으로 가족의 기능향상은 물론, 가족성원간 상호 이해 및 협동심 향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위기관리 능력 및 대처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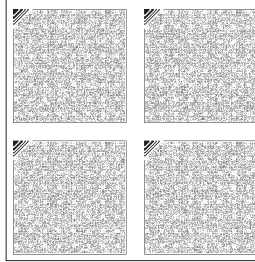
자리가 마련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빠와 함께 민속체험 속으로...’라는 타이틀로 ‘천연염색, 점토로 가족역자 만들기’ 체험행사를 진행하고

‘아빠와 함께 전통먹거리 속으로...’라는 주제로 ‘인절미만들기, 두부만들기’를 실시한다. 끝으로 ‘눈과 마음의 힐링속으로...’라는 주제로는 ‘판소리수업, 뮤지컬공연관람’을 진행한다.

충남장복은 보도자료를 통해 “아빠와 가족이 함께 체험하고 참여하여 가족의 응집력을 강화하고 아빠와 아이의 긍정적인 관계향상에 도움을 주는 시간이 될 것이다”며 대외취지를 밝혔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용인처인장복, 찾아가는 작은 복지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복지환경 조성



찾아가는 작은 복지관 서비스 이용자들이 서비스신청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관장 정의철, 이하 용인처인장복)은 11월 21일 모현면 왕산리 마을회관에서 지역사회와 호흡하는 '찾아가는 작은 복지관'을 개최했다.

찾아가는 작은 복지관 사업은 처인구 일대 읍, 면 단위의 중증 장애인 가정은 물론 복지관 이용이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로 처인구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한 복지관의 특성화 사업이다.

이번 방문지역은 용인 모현면에서 진행됐고 지역 자원 및 모현면 주민들과 연계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 수혜의 기회를 마련했다.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재활상담, 무한돌봄 상담, 건강검진, 수지침, 이미용, 물리치료, 발마사지, 이동 빨래방 세탁지원,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 지역 내 후원업체와 연계하여 1% 나눔 실천

이 진행됐다.

용인처인장복 정의철 관장은 "찾아가는 작은 복지관을 통해 용인관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들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복지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천장복, 산재장해인 사회적응프로그램 진행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 사회복귀 의지 다져



산재근로장해인 사회적응프로그램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천군장애인복지관(관장 한명수, 이하 진천장복)은 18일간 근로복지공단과 함께하는 산재근로장해인 사회적응프로그램을 주관해 진행했다.

일정 중 12일차에는 직업기향상 및 사회복귀의지 향상을 위해 사업체 (주)코아텍(대표 이병희)을 방문했다. (주)코아텍은 화장지 생산에 필요한 자재(지관)를 생산하는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되어 20여명(국내 근로자 10명, 외국인 근로자 10명)이 근무하고 있다.

사업체 견학에 참여한 김OO씨는 "사회적응프로그램을 통해 신체기능손상 및 정신적 충격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써 직업 및 사회에 원활히 복귀하여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다졌다."고 말했다.

2014년 근로복지공단과 함께하는 산재장해인 사회적응프로그램은 직업기향상을 위한 Holland 직업흥미검사, 취업준비, 소비자피해예방, 금융자산관리, 창업정보제공이 진행되며 사회기향상 프로그램으로 가족스포츠포여가활동 등이 진행됐다.

김천시보건소와 MOU 체결

지역기관연계 및 전문서비스 강화



김천장복과 김천시보건소가 MOU를 체결했다.

MOU를 통해 김천장복은 김천시보건소와 장애인 재활촉진 및 건강증진을 위한 정보를 교류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건소의 전문의료 인적자원 및 물적 지원을 받기로 했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특별행사 등의 사업 방향 설정 및 정보제공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천장복은 보도자료를 통해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상호 축적된 복지 서비스와 관련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장애인복지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장애인들에게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하게 될 것이다."며 이번 협약식의 의미를 전했다.

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박선하, 이하 김천장복)에서는 11월 12일 김천시보건소(보건소장 우문경)와 지역사회연계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발전과 장애인 재활촉진 및 건강증진을 위해 MOU를 체결했다.

지역민 보장구수리점검 사업실시

문경시장장애인복지관(관장 박종훈, 이하 문경장복)은 경북 재활협회와 한독의료기, (주)케어라인, 문경시 지체장애인협회, 문경시 척수장애인협회와 공동으로 보장구 수리점검 및 방문서비스를 실시하였다.

금년 들어 세 번째 실시한 사업현장에는 김옥희 문경시 사회복지과장을 비롯한 박흥진

문경시지체장애인협회장, 전영오 문경시척수장애인협회장, (주)케어라인 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장애인과 서비스요원들의 노고를 위로 격려하였다.

또한 보장구사용에 따른 애로사항과 개선점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서비스 요원

들이 산복, 가운, 영순 등 장애인가정을 방문하여 보장구상담 및 수리점검을 실시하여 총 45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보장구수리점검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대·강화하고 더불어 경제적 부담완화 및 자립생활을 지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5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4회 실시하고 있다.



보장구수리서비스 이용자들이 보장구점검을 받고 있다.

2014 지체장애인의 날 기념 『제14회 전국지체장애인대회』 이모저모



11월11일 지체장애인의 날, 전국의 지체장애인 지도자들이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제14회 전국지체장애인대회'에 참석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자랑스런지체장애인상 대상'을 시상한 후 수상자인 서울지정협 손영호 협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의원이 '봉사대상'을 시상한 후 수상자인 최준원 변호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정협 김광한 중앙회장이 대회사를 전하고 있다.



새누리당 정두언 국회의원이 '화합상'을 시상한 후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국회의원이 '지립상'을 시상한 후 수상자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정록 국회의원이 '지립상'과 '지도자상'을 시상한 후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최종균 국장이 '지도자상'을 시상한 후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정협 김광한 중앙회장이 '모범상'을 시상한 후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국지체장애인대회에 참석한 주요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축사를 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최경준 국장이 보건복지부장관 축사를 대독하고 있다.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의원이 축사를 전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정록 국회의원이 축사를 전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국회의원이 축사를 전하고 있다.



서울시장협 마포구 김동희 지회장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의원이 지장협 고문추대패를 전달받고 김광현 중앙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장협 김광현 중앙회장이 최우수지회 및 우수지회 선정 지회장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장협 김광현 중앙회장이 최우수협회로 선정된 경기협회 김기호 협회장, 우수협회로 선정된 전북협회 김형근 협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국지체장애인대회 행사장 인근에서는 장애인식개선사업으로 장애차별문제해결에 동참하는 손서약서 만들기 캠페인이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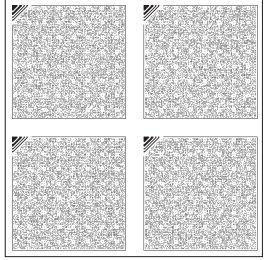


전국지체장애인대회 행사장 인근에서는 장애인문화예술미팅展이라는 부대행사 전시회가 진행됐다.



2부에서는 퓨전국악 민경창피의 축하공연이 진행됐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2014 전국중증장애인배우자초청대회’ 아름다운배우자상 수상 시기

김주옥 · 임혜현 부부

“우리 부부가 살아온 17년”

저와 남편은 지금으로부터 17년 전 31살에 만나 결혼을 하여 지금 슬하에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하나를 양육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의 하루는 아들의 학교 등교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며 시작합니다. 지금의 이 평화로운 가정 되기까지 우리에게는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의 이 행복이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하기만 합니다.

저와 남편은 지체장애 1급과 3급의 장애를 각각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의 장애를 보완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우리는 많은 조건 따지지 않고 결혼에 골인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우리 부부는 함께 장애인근로시설에서 맞벌이를 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함께 근로활동을 하였기에 수급권에 의지하지 않고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신혼의 행복도 잠깐 어느 날 남편은 자꾸 몸 이곳저곳이 이유 없이 아프다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무리해 돌아다녀서 그러려니 생각을 하고 가볍게 넘어가곤 했는데 밤이면 밤마다 그 빈도와 통증의 강도가 심해서 참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안되겠다 싶어 대학병원에 진료 예약을 하고 정밀검진을 한 결과 희귀성난치병인 베체트라는 병명의 질병이었습니다. 이 병의 증상은 몸의 면역력을 일정하게 해 주지 못해서 오는 병으로 갑자기 툭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면서 몸 이곳저곳에 염증을 일으키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질병이었습니다. 소아마비라는 장애도 모자라 희귀병이라니, 그것도 완치가 불가능한 평생을 함께 달고 살아야할 병이라는 소리에 우리 두 사람은 말 그대로 망연자실 이었습니다. 아니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그 진단이 내려지고 얼마 후 부터 남편의 온갖 통증을 시작되었습니다. 한밤중 진통제 없이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 어지럼증 증상이 시작되면 혈변이 나오기 시작해서 응급실로 가면 장에 출혈이 진행되고 응급 처치를 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온몸의 피부에 발작증세와 가려움증이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발병이 일어날 때마다 남편은 휴직계를 내아했고 나는 남편의 병수발과 가사일, 직장일을 모



2014 전국중증장애인배우자초청대회 아름다운배우자상을 수상한 김주옥씨와 임혜현(남편) 부부

두 감당해야 했습니다. 참으로 삶이 버겁고 힘들었지만 우리 두 사람은 죽을 병이 아닌 것에 감사하자며 묵묵히 인내했습니다. 그래도 혼자서 아닌 누군가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남편은 많은 위로를 받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 생활이 끝나면 다시 직장에 복귀해서 함께 맞벌이를 했습니다. 하지만 빈번한 휴직으로 인해 남편의 몸도 직장에도 폐를 끼칠 수 없어 남편은 1996년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남편의 건강이 좋아지면 다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가 있었기에 저는 일을 계속 다녔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일을 하고 퇴근한 후 남편은 그냥 집에서 컴퓨터와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면 갈등과 불화로 이어지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 갖는 문제를 놓고 우리 부부는 진지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지금의 현실도 힘든데 아이까지 있으면 더 힘들다며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이라도 있으면 삶의 의미와 활력이 새로울 것 같아 1년간 병원을 다녔으나 아기에 대한 꿈은 생각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은 우리의 이 안타까운 희망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의 몸에 이상이 있어 병원에 갔더니 임신이란 것입니다. 그때의 그 감격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도 컸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자연 임신을 결혼

한지 9년 만에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부부는 하늘이 그간의 시련을 잘 견디며 살아온 보상을 준거라 생각하며 더욱 열심히 감사하며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임신한 상태에서도 계속직장을 다녔고 출산 1달 전까지 활동이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까지 악착같이 일을 했습니다. 드디어 2006년 2월 23일 새벽 2.8kg의 건강한 남자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그때의 심정은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고 남편은 밤새 통통 부은 얼굴로 아이와 나를 보려 단숨에 병원에 달려와 기쁨을 표현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힘들었지만 정말 열심히 살자는 다짐을 또다시 새롭게 하면서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또 아기가 세상에 나온 지 3개월 만에 병원으로 실려 갔습니다. 그때 당시엔 이 모든 것을 나 혼자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아이를 동생한테 맡기고 출근을 했고 주말에는 유모차에 아이를 태운상태에서 장콜을 타고 아빠가 입원한 병원을 다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 모든 상황들을 견뎠는지 모릅니다. 아마도 아기가 큰 힘이었나 봅니다. 이렇게 육아와 직장생활을 5년여간 해오다 2010년 직장생활을 마감했습니다. 혼자서 직장을 다니며 남편의 병원비를 감당하려니 실로 어마어마 했습니다. 우리 수입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직장을 그만두고 수급권의 도움을 받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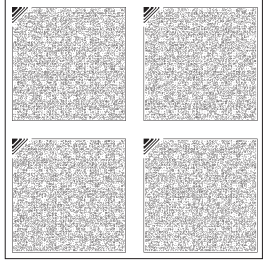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계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의료비는 큰 해택이 되었기에 우리는 그때부터 수급자가 되어 나라의 도움을 받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 남편상태는 많이 호전되었지만 여전히 그 불치의 질환은 따라 다니고 있고 하루 세번 한주먹의 약으로 병을 다스리며 살아갑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아이는 건강하기에 늘 우리부부에게 활력과 웃음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남편은 여러 여가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운명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며 즐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가끔 약부작용과 온몸에 이상 증세가 찾아오면 또 힘들어 하며 고통스러워 할 때도 있지만 늘 감사하며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었으면 물론 더 좋았겠지만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의 순간들이 있기에 삶이라고 하는 인생의 깊이와 참맛이란 것이 무엇인지도 알게 된 듯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 사람이 함께 안락한 보금자리에서 서로 부대끼며 산다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몰아닥칠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잘 극복하며 살아온 것처럼 우리 두 사람은 어떤 시련의 어떤 파도가 닥친다 해도 절망하거나 주저 앉지 않고 당당히 맞서서 헤쳐 나갈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찬후이가 있고 우리 두 사람도 아직은 젊음이 있기에...가족이라는 것 결코 한사람으로써는 완성할 수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커다란 파노라마를 오늘도 우리 가족은 조금씩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함께 산책을 하고 주말에는 나들이와 문화관람을 합니다. 이런 여유와 삶의 기회들이 있을 때 맘껏 하자는 방향성은 우리 부부가 일치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힘이 되준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들의 도움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도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금 그분들을 생각하며 감사의 마음을 가져봅니다.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의 이 삶에 충실하려 합니다. 우리 가족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갈 것입니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재활복지공학회, 2014 추계 정기학술대회 개최

79편 논문 발표...보조기기 기업체 세션도 열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 등 다양한 국가의 재활복지공학 분야 최신 연구 논문을 한 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는 자리가 열렸다.

한국재활복지공학회(회장 이응혁)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인천 부평구 소재 재활공학연구소에서 '2014 추계 정기학술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한국재활복지공학회와 재활공학연구소, 한국산업기술대학교 ICT융합재활의료기기연구센터, 인하대학교 정보전자공동연구소, 전북대학교 고령친화복지기기연구센터가 주최·주관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국내외 석학들이 참여해 재활복지공학 분야 논문을 발표하고,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창조경제와 재활보조기기산업'을 주제로 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일반과 포스터 등 연구결과 논문 79편이 발표됐다.

포항공대 창의IT융합공학과 여명숙 교수가 '호모 루덴스를 위한 재미의 제조술'을 주제로, 미국 버지니아주 맥과이어 베테랑 메디컬 센터 벤 셀러틴 재활치료사가 'Creating Assistive Technology in the Clinic With 3D Printing'를 주제로 초청강연을 펼쳤다.



재활보조공학학술대회에서 재활로봇 등 보조공학관련 논문들이 발표됐다.

다. 여명숙 교수는 "최근 열풍이 불고 있는 융합 패러다임과 창조경제 관련 정책 이슈들은 모두 하나의 그림을 지향하고 있다"며 인문적 관점에서 산학연 경계 허물기의 현실적인 가능성을 모색하고, 21세기 기술로서 극복 가능한 인간 조건과 재미에 기반한 몸의 회복을 탐색하는데 초점을 맞춰 발표했다.

아울러 △재활로봇 △헬스케어 △보조공학 서비스 사례 △헬스케어기기 디자인 △고령친화 △재활의료기

기 명품화 △정보통신 접근성 △보조기기 설계 △재활시스템 △재활치료 및 사용성 평가 △이동기기 각 분야에 대한 연구논문이 발표됐다.

올해는 특히 기업체 세션이 진행돼 학부생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여기서는 복지차량 전문 기업 창림모아츠 박성권 대표이사, 힘스인터내셔널 윤양택 부회장, 싸이버메딕 정호준 대표이사, 클루소프트 김진수 이사가 각각 회사 및 제품 소개와 함께 보조기기산업 현황 등을 발표했다.

학술대회 둘째 날인 7일 오후 열린

개회식에서 한국재활복지공학회 이응혁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아시아 주요 나라에서 참석해 재활공학의 발전을 위한 워킹그룹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재활공학 전문가들의 결속을 다졌으며, 한국보조기기산업협회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산학협력의 장을 새롭게 여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논문 발표를 통해 이루어지는 토론이 학문적으로만 머물지 않고 열린 사고로 서로의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교환하고 보완하는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재활공학연구소 류제청 재활치료훈련연구팀장은 문무성 재활공학연구소장을 대신한 축사에서 "이번 추계 정기학술대회는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등 다양한 논문이 발표돼 학술 교류와 우호 증진에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재활공학연구소는 20년간 수행해온 재활공학 기술의 꾸준한 지원과 연구를 통해 향후 한국재활복지공학회의 성장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보조기구 산학협력 체계 구축

보조기기산업협회-재활복지공학회 MOU 체결

보조기기 연구개발과 제품 생산 및 상용화를 통한 보조기기산업 발전의 길이 열렸다.

한국보조기기산업협회(회장 박성권)와 한국재활복지공학회(회장 이응혁)는 지난 6일 부천 고려호텔에서 양 기관 회장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보조기기가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사업을 전개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협력대상 분야는 △보조기기 프로

그램 공동개발 및 산학협력 추진 △공동세미나 및 학술회의 개최 △재활복지산업 관련 정보교환 △의료기기 산업 정보교환 등이다.

또한 각 기관 임원의 당연직 임원화를 추진하고 기타 업무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관해서도 적극 협력해 나간다는데 입장을 같이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박성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연구개발 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학회와 제품생산 분

야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 구성된 협회가 상호 협력의 길을 열게 됨에 따라 국내 보조기기산업 발전에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응혁 회장은 "연구개발에 그치지 않고 산학협력을 통해 제품의 생산 및 상용화가 가능케 되어 보다 진일보하고 첨단화된 보조기기를 개발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협회측에서 박성권 회장과 윤양택 명예회장, 정성민 부회장이, 학회측에서는 이응혁 회장과 민홍기 명예회장, 송병섭 류제청 이사 등이 참석했다.

한편 한국재활복지공학회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인천에 소재한 재활공학연구소에서 '2014 정기학술대회'를 갖고 재활복지공학 분야 논문 발표 및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잠실창작스튜디오, '프로젝트A' 전시회 열어

장애아동과 창작예술가 멘토링 결과 작품 전시

지난 11월12일부터 23일까지 서울시 신청사 지하 시민청 B1 시티갤러리 앞에서는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잠실창작스튜디오가 진행한 장애아동을 위한 지원사업 '프로젝트A'의 작품 전시회가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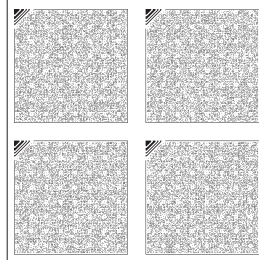
작년에 이어 2회째를 맞이하는 '프로젝트A'는 임지빈-김유나·김상경(각 자폐성장애 2급·1급, 경원중·원촌초), 마리킵-이준택(자폐성장애, 영희초), 아트놈-김도영(자폐성장애 2급, 한국육영학교), 찰스장-최서

원(자폐성장애 2급, 왕복초), 라오미-이설현(자폐성장애 2급, 남천초)으로 총 다섯 팀이 아트링크로 구성돼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됐다.

이번 전시는 <프로젝트 A>에 참여한 발달장애아동과 아티스

트의 협업 작품전시 뿐 아니라 부대행사로 토크 콘서트, 사인회 및 시민 체험 프로그램 등이 다채롭게 마련됐다. 특히 맨체스터 유니타리티의 박지성선수가 참여하여 관심을 모았다. 한편, 장애아동이 완성한 작품 중 일부는

소리로 읽는 새보람



후원사인 조아제약의 제품 포장박스 디자인에 적용될 예정이다 고 한다.

문광부, '2014년 대한민국장애인문화예술상' 시상

나사렛대학교 이상재 교수 대상(대통령 표창) 영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10월 31일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2014년 대한민국장애인문화예술상' 6명을 선정하여 수상했다.

'대한민국 장애인문화예술상'은 장애라는 신체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나라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장애예술가를 발굴·표창하여 장애예술인들에게는

전문 예술인으로서의 긍지와 희망을, 비장애인들에게는 장애인 문화예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2006년부터 실시되어 올해로 9회째를 맞는다.

대통령표창을 받은 이상재 씨는 시각장애 1급이라는 중증장애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 최초로 미국 피바디 음대(Peabody Conservatory of Music)에서 석·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세계 유일의 민간 시각장애인 오케스트라 '하트시각장애인체임버 오케스트라'를 창단하여 음악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다. 우수상(국무총리 표창)은 화가이자 태안여자고등학교 교사인 권오철 씨가 수상했으며 미술, 음악, 문학, 대중예술 등 분야별로 수여되는 문체부장관 표창은 서양화가 탁용준 씨, 첼리스트 김여령 씨, 시인 최명숙 씨, 배우 강민희 씨가 각각 수상했다.

모리때, 정기 그룹전 개최

다양한 분야의 장애예술작품 전시



모리때 정기그룹전 참여 작가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참가자들로 구성된 장애예술가들의 모임 '모리때'의 제3회 정기 그룹전이 11월14일부터 16일까지 홍대 더 갤러리에서 개최됐다.

이번전시에서는 모리때 소속 작가들의 전시뿐만 아니라 초대작가 3명의 작품들도 함께 전시됐다. 초대작가는 리본공예가 홍남미(지체장애), 서양화가 고남숙(지체장애), 전통조각보 작가 유옥순(지체장애)씨가 참여했다. '모리때' 소속 작가들은 서양화 권태수(지체장애), 사진 박숙은

(지체장애), 일러스트 박영진(청각장애), 등공예 진점분(지체장애), 압화공예 장명희(지체장애), 생활자수 장은미(지체장애) 작가 등이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작품 전시와 함께 아트상품 및 작품을 판매하는 아트페어도 함께 선보였다. 또 미디어사진수업의 결과물도 전시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

모리때 참여작가인 박숙은씨는 "모리때는 다양한 분야에서 실력을 인정 받은 작가들로 구성

되어 있다. 이처럼 다양하고 수준 높은 장애예술작품들을 한자리에 만나기란 쉽지 않다. 앞으로 모리때는 더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작품들을 전시함으로써 장애인과 장애예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에 노력할 것이다."며 전시회의 의미와 확대에 대한 의지를 역설했다.

한편 전시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후원하는 2014년 장애인문화예술향수 지원사업으로 더 플라워(The Flower)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한국장애예술인협회, 시집 '아름다운 프로포즈 5' 출간

한국장애예술인협회(대표 방귀희)에서 2014년 장애인 문학사업으로 솜북시리즈 '아름다운 프로포즈 5'를 출간했다.

시집 <내 마음의 오두막>(故 송재익), <버티목>(김판길) 소설 <지난 삶의 추억

애인으로 처음 받아든 시집을 만져보기만 하다가 주위에서 시집이 예쁘다는 칭찬에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또한 시집 <너의 꽃으로 남고 싶다>(Let Me Linger as a Flower in Your Heart)는 국내 최초로 영어로 번역된 장

최초 장애인문학 영역시집

<너의 꽃으로 남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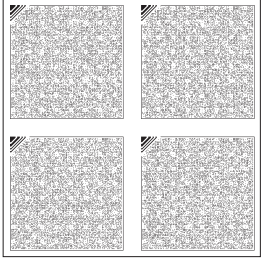
은 문지 마라>(김재찬), <두 남자의 상상>(김정운, 김효성) 그리고 장애시인 53인의 한영시집 <너의 꽃으로 남고 싶다>(Let Me Linger as a Flower in Your Heart)가 바로 그것이다.

평생 자신의 시집을 갖는 것이 소원이었던 송재익 시인은 결핵성 관절염으로 온몸이 마비된 상태에서 투병을 하다가 책이 나온 다음날 세상을 떠나 유고시집이 되었고, 김판길 시인은 시각장

애인문학작품으로 향후 국제적 소개와 활동이 가능하여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장애예술인협회 방귀희 대표는 "장애인예술분야에서 장애인문학이 소외되고 있어 지난해에 이어 솜북시리즈를 발간하고 있다. 그러나 1년에 5권은 매우 부족하다. 장애인문학을 발굴하고 장애인문학사업 확대를 위해 더욱 다양한 기회가 주어질길 기대한다."며 사업확대의 필요성을 전했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견인차 역할을 했다.

한편 대회 조직위원회는 재정 부족에 따른 중앙정부의 국제장애인스포츠대회에 대한 지원 비율 향상과 교육적 효과를 고려한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참여확대가 필요하다고 평했다.

다음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는 2018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성료

한국 금72 은62, 동77개로 종합 2위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폐회식이 진행되고 있다.

열정의 물결, 이제 시작이다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가 10월 18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24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인천에서 개최됐다.

총 41개국 6천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한국은 금72, 은62, 동77개로 종합 2위를 달성했다. 한편 70여년 만에 사상 최초로 참가한 북한장애인 선수단은 육상 1명, 양궁 1명, 탁구 4명, 수영 3명 등 총 4개 종목 9명의 선수, 24명의 임원 등 총

33명이 참가했다. 또한 수영의 심승혁선수가 동메달을 따내 북한 최초의 아시아경기대회 장애인 메달리스트가 됐다. 북한은 총 2개의 동메달로 종합순위 29위를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육상 2관왕 전민재 선수, 수영 2관왕 15세 소녀 강정은 선수, 핸드사이클 2관왕 이도연 선수, 휠체어 댄스 3관왕 최문정 선수, 사격 3관왕 박진호 선수 등이 발군의 실력을 보이며 한국의 종합2위 달성의

제3회 아산시장배 전국어울림배드민턴대회 열려

“장애인과 비장애인 통합의 시간” 가져



아산시장배 전국어울림배드민턴대회 참가자들이 경기를 펼치고 있다.

제3회 아산시장배 전국어울림배드민턴대회가 아산시장애인복지관(관장 이창호, 이하 아산장복)의 주관으로 지난 11월 22일 전문대학교 체육관(아산시 탕정면 소재)에서 개최됐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장애인체육을 즐기고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배드민턴 우수선수 발굴 및 장애인생활체육의 활성화 취지에서 마련됐다.

경기종목은 휠체어 남자 복식과 좌식 남자4인조, 여자4인조, 어울림 혼성 4인

조, 그리고 지적장애인만 참가하는 지적장애 남·여 복식 경기 등 모두 200여명이 참가했다.

아산시장애인복지관 이창호 관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통합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체육의 발전을 위해 앞장서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대회는 아산시장애인체육회(회장 이창호)가 주최하고 아산시장애인배드민턴협회(회장 엄신호)의 공동 주관으로 진행됐다.

2014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

경기도 종합우승, 2위 인천, 3위 서울

전국 장애인들이 하나되는 열정과 화합의 대축제 ‘2014년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11월 4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8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도전과 극복의 경기들이 진행됐다.

2000년 인천에서 처음으로 전국 순회 개최를 한 이래, 14년 만에 인천에서 다시 열린 이번 대회는 각 시·도 대표선수 5,101명, 임원 및 관계자 1,751명으로 총 6,852명이 참여해 29개 경기장, 21개 종목에서 치러졌다.

종합우승은 금136, 은132, 동115개로 경기도가 차지했고 이어 2위 인천, 3위 서울이 영예를 안았다.

이번 대회에서는 한국신기록 285개, 대회신기록 65개, 세계신



11월8일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2014전국장애인체육대회 폐회식이 진행됐다.

기록 2개가 배출되어 각종 기록을 갈아치우는 대회로 거듭났다. 한편, 이번 대회는 학생장애인체전(15개 종목)이 통합돼 함께 개최됐으며, 세종특별시의 참가로

최초로 17개 시·도가 대회를 치렀다.

2015년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강원도 강릉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제8회 충청북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최

13개 종목 2,200여명 역대 최대 참가

제8회 충청북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가 옥천군 옥천체육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10월 15일(수)부터 16일(목)까지 1박 2일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이번 대회는 옥천군체육센터 외 7개 보조경기장에서 개최종목 13개 종목 시·군 선수단 및 관계자 총 2,200여명이 참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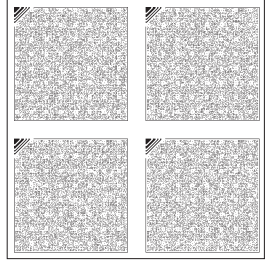
는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다.

충북도는 처음 실시하는 이번 순회 대회를 통해 충북도민에게 장애인체육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장애인체육에 관심을 높여 시·군 장애인체육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시종 지사는 대회를 통해

“한마음 생활체육대회는 도내 10만 장애인이 세상과 소통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마음을 나누는 화합과 우정의 한마당 잔치”라면서 “2017년 전국장애인체전이 충북에서 개최되는 만큼, 체계적인 선수육성, 체육시설 확충 등 장애인스포츠 인프라 확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디즈니의 다음 영화는 장애인공주 이야기를...

장애아 어머니, 청원사이트 통해 디즈니에 제안



캐서린의 두 딸 줄스(왼쪽)와 딜레이(오른쪽)(사진: The Washington Post).

다운증후군 장애아를 둔 한 어머니가 청원 사이트(www.care2.com)를 통해 디즈니사의 애니메이션 영화에 장애인캐릭터를 등장시켜 줄 것을 제안해 화제가 되고 있다.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케스턴에게는 두 딸이 있다. 어느 날 6살 언니 줄스와 다운증후군 장애를 가진 15개월 된 동생 딜레이가 함께 30번째로 영화 겨울왕국을 보고 있었다. 동생과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영화를 보고 즐거워해야 할 언니 줄이 평상시와 달리 아주 슬픈 얼굴을 하고 거실에 누워있었다. 어머니는 큰딸에게 다가가 물었다. “무엇이 잘못되었니?” 줄은 눈물을 흘리며 답했다. “동생은 공주가 될 수 없어요?” “아니란다. 동생은 공주님이 될 수 있어” 어머니는 부인했지만 줄은 다시 슬픈 얼굴로 대답했다. “동생처럼 생긴 공주는 없어요. 엄마!”

케스턴은 이후 청원사이트를 통해 디즈니사에 다운증후군 장애아 캐릭터가 등장하는 영화제작을 제안했고 70,000여명이 지지서명에 응했다. 이에 지난 11월11일 영화사 디즈니는 “모든 아이들에게 친근하고 접근 가능한 캐릭터를 등장시키도록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청원사이트에 보냈다고 한다.

장애인을 위한 하반신 로봇 슈트

미국 FDA승인 및 보험지원가능여부 타진



▲파커하니 핀 사의 외골격로봇슈트 인디고.

◀인디고를 착용하고 있는 휠체어 장애인 데이비드 카터(사진: The Wall Street Journal).

일본 등을 중심으로 일명 입는 로봇 슈트가 속속 개발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장애인 의료기기로 개발된 ‘인디고 외골격’이라는 제품이 FDA승인을 요청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제품은 처음부터 척수 손상이나 다발성 경화증 등과 같이 걸을 수 없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개발됐다.

이 제품은 휴대폰에 가로와 세로 회전을 인식하는데 사용되는 작은 자이로칩을 활용하여 수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속도와 위치를 감지하여 자동 제어한다. 제

품 개발사인 파커 하니핀 사는 “지금까지 수많은 하반신 로봇 슈트가 개발되어 왔지만 상품단계에까지 이른 제품은 없었다. 우리는 이 제품이 척수손상을 입은 사람들이 겪는 순환문제, 약화된 골밀도로 인해 발생하는 골절, 심장질환 등을 개선해주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제품 상용화에 대한 강한의지를 표명했다.

이 제품을 시범사용하고 있는 데이비드 카터는 “오토바이 사고로 하반신 장애를 갖고 2010년부터 휠체어에 의지하며 하체 근력의 대부분을

잃었다. 그러나 인디고 착용 이후 허리와 복부 근육이 강화됐고 다리에 발생하는 근육 경련의 빈도가 뚜렷이 감소했다.”며 소감을 밝히고 “향후 근육강화에 힘써 장애인 수상 스키에 참가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이 제품은 미국의 재활센터 5곳에서 40명이 참여하여 테스트단계를 거치고 있다. 무게는 26파운드(약 12Kg) 정도이며 가격은 7만~10만 달러(한화 약 7천~1억여원)로 책정될 예정이라고 한다

손가락 터치가 필요 없는 스마트폰

이스라엘, 파킨슨 등 사지장애인을 위한 스마트폰 개발



◀참깨 폰의 화면 개요(사진: 24news).



◀참깨 폰을 사용해 스마트폰 게임을 실행하고 있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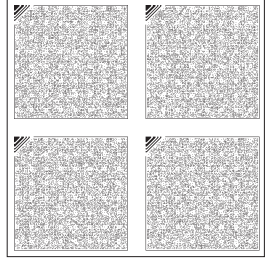
이스라엘의 한 신생기업이 장애인의 스마트폰 사용을 지원하는 ‘참깨’라는 어플을 개발 중에 있다. 오디트 벤 도브와 지오라 리브에 의해 설립된 이 회사는 척수손상장애인 및 파킨슨, 다발성 경화증과 같은 사지를 사용하기 어려운 지체장애인의 스마트폰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

터치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완벽하게 제어하기 위해 얼굴인식, 제스처 조합, 음성인식기술을 모두 사용한다. 스마트폰 정면을 보고 있는 얼굴과 머리의 움직임에 따라 화면에 표시된 커서(화살표)를 제어할 수

있다. 그리고 지정된 아이폰에서 ‘열러라 참깨’라는 음성명령을 내리면 어플이 실행된다.

참깨폰의 개발자인 벤 도브는 “우리의 슬로건은 ‘터치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입니다. 우리의 참깨폰은 터치가 필요 없다. 사지를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표준 스마트폰은 지금까지 우리 참깨폰 뿐이다.”며 무터치폰의 가치를 역설했다. 이어 “현재는 안드로이드폰 운영체제에서 운영할 수 있고 아이폰용은 2015년 3월에 정식발표 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지역사회 소규모 사립문화 시설의 장애인 접근성은?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본인식 확대돼야

최근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한 많은 사업들이 전개되고 있다. 또한 문화예술영역 사회직업들도 속속 지역에 파고들면서 지역문화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시장부터 마을골목까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또 작은 미술관이나 전시장 등 사립문화시설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사립 문화시설들이 장애인의 접근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복지관 미술프로그램에 참여해 문화에 관심이 많아진 장애인 A씨, 비록 등단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소소하게 작품을 그리기도 하고 또 좋은 그림들을 관람하는 자신만의 견해도 생겼다. 어느날 집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사립미술관이 생긴다는 소식에 매우 기뻐했다. 드디어 개관식이 열리는 날 찾아간 미술관은 그러나 실망만을 안겨 주었다.

1층 전시장에도 몇 개의 계단이 있어 입구부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던 것이다. 계다가 3층 규모인데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1층만 관람할 수 있었다.

복지관 사진동호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 B씨는 강사가 개인전을 연다는 소식에 꼭 찾아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강사는 B씨에게 개인전에 오지 않는 것이 어떨까라고 제안했다. 강사도 넉넉지 않은 비용으로 개인전을 열다보니 비용절감을 위해 편의시설이 좋지 않은 갤러리를 대관할 수 밖에 없었던 것. 강사는 미안해하고 B씨 역시 민망한 상황에 답답하기만 했다.

사립문화시설의 이러한 열악한 장애인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사립문화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설치를 위한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대규모의 문화·예술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제에관한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라고 함)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편의증진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영세한 사립 문화·예술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기대하기엔 무리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05년부터 연간 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사립 문화·예술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공사비를 지원하고 있다.

매년 초에 지자체를 통해 지원 대상시설을 모집하고 문화부 담당자와 지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이하 “편의센터”라고 함) 직원,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조사단이 현장실사를 진행하여 대상시설에 대한 기본데이터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최종 대상시설을 선정하게 된다.

대략 1개의 대상시설에 2,000만원 ~ 3,000만원의 공사비가 지원되며 지원받는 대상시설에서는 자부담으로 공사비의 10%를 부담하면 된다.

지원하는 장애인 편의시설의 종류는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문, 승강설비, 장애인용 화장실, 점자블록, 관람석 등 편의증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시설이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 대상시설로 선정이 되면 개선공사를 위한 도면을 첨부하여 편의센터의 컨설팅을 받아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사완료 후에는 검수 받은 도면대로 시공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실사도 이뤄지며, 미비한 경우 재시공을 통해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대상시설 당 지원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 개선해야 할 여러 장애인 편의시설 종류가 있더라도 장애인 이용을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하고 있어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문체부 사립문화예술 시설지원을 받은 OO사립박물관 현장 사례를 살펴보면



사립박물관에 설치된 경사로가 휠체어가 사용하기엔 폭이 좁고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원거리에 설치되어 있어 이용이 어렵다.



기준에 맞게 경사로 유효폭을 넓히고 손잡이를 설치하였다.



주출입구에 점형블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시각장애인의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



주출입문 전면에 30cm 이격하여 점형블록을 설치하였다.



계단에 손잡이가 규격에 맞지 않고 점형블록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



손잡이 두께를 3.2cm로 설치하고 점형블록도 설치하였다.



장애인용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하였다.

고 용 상 담

조호근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장애인노동상담센터장)

‘명목상 휴게시간 늘리기’ NO!

-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 -



장애인근로자 중에는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 중 상당수는 사업주가 휴게시간을 늘려 잡아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얼마 전 지체장애 3급 장애인인 김모씨는 오전 7시에 출근해도 8시 출근으로 계산하고, 휴게시간을 3시간으로 늘리는 식으로 임금을 적게 지급하고 있다며 상담을 요청한 적이 있었다.

이렇게 장애인근로자의 경우엔 휴게시간 1시간도 편안히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휴게시간을 늘려 잡고 있어서 상당수의 장애인근로자들은 일상적으로 임금체불을 당하게 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특히 교대 및 야간근무를 하는 장애인근로자들은 연장 및 야간근로에 따른 할증임금까지 체불 당하게 되고, 그 피해는 더 클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실 실제 해당 시간이 휴게시간으로 이용된다면 급여지급의 의무는 없다. 왜냐하면 휴

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명목상 휴게시간일 뿐, 해당 시간에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 있거나, 다음 업무를 준비하거나 해당시간의 이용에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대기시간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근로자의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2012년 8월 2일부터 ‘대기시간도 근로시

간으로 간주’ 한다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표하여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명칭이 “휴게시간”이건 “대기시간”이건 간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한다면, 이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근무시간에 해당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상담을 하면서 만났던 장애인들은 대부분 권리구제에는 소극적인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제는 좀 바뀐 것 같다. 적어도 노동현장에서 만큼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적극적으로 찾는 장애인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2.1>

▲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 ©조호근

민 원 상 담

임상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정책지원부장)



Q) 국가가 제공하는 주택관련 제도 중 임대주택에 대해 막연히 알고 있는데 좀 더 상세히 알려주시겠습니까?

A) 면적과 입주자격에 따라 영구임대, 국민임대, 공공임대로 구분되어 집니다. 먼저 영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전용면적 23.1~39.6㎡ 이하 주택을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합니다.

다음으로 국민임대주택은 가구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로 2014년 4인기준 357만원이하 소득을 가진 무주택자에게 제공이 되어 전용면적 36.3~59.4㎡ 이하 주택을 시중 임대료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임대주택은 가구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로 올해 4인기준 51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전용면적 85㎡ (26평)이하 주택을 시중 임대료의 80~100% 수준으로 5년 또는 10년간 임대후 분양전환합니다.

영구임대는 '89년부터 '92년까지 전국적으로 총 19만호를 건설하였으며, 이후 건설이 중단되었다가 2008년부터 10만호 공급을 추가로 실시중으로 국민임대는 수원, 인천, 대

구 등 전국 40여개 단지에서, 공공임대는 부평과 평택 등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Q) 임대주택이외에 전세임대도 제공되고 있지요?

A) 먼저 장기전세임대주택 지원이 있습니다. 가구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20% (4인기준 612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에게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을 시중 임대료의 80~100%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시군구청이나 LH, SH로 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외에 기존주택전세임대와 신혼부부전세임대, 소년소녀가장 등 전세주택 제공이 있습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4인기준 255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등에게, 신혼부

부 전세임대는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4인기준 255만원) 이하이며 결혼 5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소년소녀가장 등 전세주택은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4인기준 510만원) 이하인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아동 등에게 제공 됩니다.

입주대상자가 희망하는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을 선정하면 LH공사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합니다.

기존주택·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수도권 최대 7,500만원, 광역시 최대 5,500만원, 그 외 지역 최대 4,500만원 지원하지만 이러한 전세임대주택들에 대한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LH 등 시행주체에 제출할 서류가 매우 복잡함을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Q) 집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랜시간이 경과하다보면 집이 낡아서 고민인데 집을 고쳐주는 제도도 있나요?

A) 주거현물급여(집수리)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220만원 범위 내에서 도배, 장판, 보일러 설치 등을 지원(관할 주민센터로 문의)하며, 저소득층 국내 급수관 개량 및 교체지원은 노후된 수도관을 개량하거나 교체하도록 비용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지원으로 지역별 상하수도사업본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노후된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에게 가구당 최대 288만원까지 슬레이트 건축물의 철거 및 처리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사업주간담회

장애인고용사례 및 노하우 공유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직업재활 네트워크 유관기관 10곳과 공동으로 10월 30일, 에텔바이스 영등포점에서 '2014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사업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총 25개 업체, 11개 단계에서 장애인고용 사업주 및 인사담당자 48명이 참석했다.

간담회 진행은 인권교육과 장애인고용 우수 3개 업체의 장애인고용사례 및 노하우 발표순으로 구성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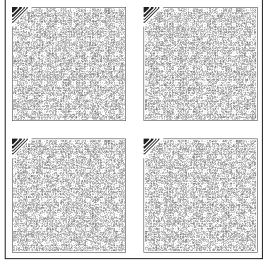
간담회에 참석한 단체 관계자



2014년 사업주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장애인직업재활 네트워크를 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장애인고용업체에도 기관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구인업체와

소리로 읽는 새보람



도움이 될 것이다.”며 행사 활성화를 기대했다.

간담회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강서 뇌성마비복지관,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에텔장애인복지관,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신장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공동주최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전남지역센터 개소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회안전망 확충에 기여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과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사장 백규현)는 11월 7일 전남지역 장애인기업지원센터(이하

“전남센터”) 개소식을 열고, 10일부터 본격적인 장애인기업지원원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역별 장애인기업센터는 장

래인 창업교육, 컨설팅, 자금, 판로 등 종합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들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거점 역할을 담

당하고 있으며, 이번에 문을 열게 된 전남센터는 무안군 삼합읍에 자리를 잡고, 전용면적 333㎡ 규모로 총 8개의 창업보육실과 회의실, 매니저실 등을 갖추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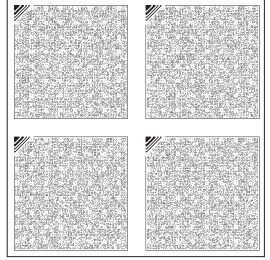
최수규 중소기업청 차장은 “장애인기업들의 장애인고용률은 일반기업의 14배나 되기 때문에,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통

해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면서, 전남센터에 이어 11월 말에는 충북센터도 개소할 예정이며, 향후 17개 광역시·도에 1개씩의 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장애인기업에 대한 현지 밀착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취업정보

	업종	업 체 명	근무지	연령	성별	근무내용	급여	보험	연락처
1	상담직	케이디텍	서울 마포구	40세 이하	여	인바운드	월 120만원	4대보험	02-2289-4322
2	경비직	삼우안전관리	서울시 강남구	65세 이하	남	경비직	월 145만원	4대보험	02-2289-4322
3	사무직	씨티에스보안	서울시 강서구	50세 이하	무관	모니터 요원	월 150만원	4대보험	02-2289-4321
4	사무직	현대해상	서울 전역	40세 이하	여	사무직	월 120만원	4대보험	02-2289-4321
5	생산직	아이퍼니처	서울시 강동구	60세 이하	남	생산직	월 150만원	4대보험	02-2289-4321
6	단순직	인앤인	서울시 중구	무관	무관	식당보조	월 120만원	4대보험	02-2289-4322
7	서비스	유플러스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35세 이하	남	컴퓨터 서버관리	월 120만원	4대보험	02-2289-4321
8	서비스	유플러스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50세 이하	무관	아웃바운드	월 120만원	4대보험	02-2289-4321
9	단순직	삼성시트	서울시 도봉구	50세 이하	남	포장 및 배송	월 120만원	4대보험	02-2289-4322
10	생산직	청밀	경기도 용인시	무관	무관	농산물 세척 및 포장	월 130만원	4대보험	02-2289-4322
11	소독직	나라개발시스템	서울시 전역	60세 이하	무관	소독직	월 120만원	4대보험	02-2289-4321
12	단순직	나라개발시스템	서울 중랑구	65세 이하	남	미화직	월 86만원	4대보험	02-2289-4322
13	미화직	(주)한얼관리	서울 서대문구	65세 이하	남	미화직	월 95만원	4대보험	02-2289-4321
14	미화직	브랜드인덱스	서울시 강남구	40세 이하	무관	미화직	월 120만원	4대보험	02-2289-4321
15	생산직	가람헤어테크	인천시 계양구	무관	무관	생산직	월 120만원	4대보험	02-2289-4322
16	생산직	센솔루션	경기도 안성	무관	남	생산직	월 120만원	4대보험	02-2289-4322
17	주차관리	휘세택	서울시 영등포구	65세 이하	남	주차관리	월 140만원	4대보험	02-2289-4322
18	미화직	(주)티지엠	서울시 중구	65세 이하	여	미화직	월 83만원	4대보험	02-2289-4322
19	경비직	대한주택	인천광역시	65세 이하	남	경비직	125만원	4대보험	02-2289-4320

소리로 읽는 새보람



‘기부’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원동력

문경시, 장애인리프트 특장버스 전달 장애인 교통편의서비스 지원

문경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박종훈, 이하 문경장복)은 지난 11월 3일 문경시로부터 장애인리프트 특장버스(26인승)를 전달 받았다.

이 특장버스는 고윤환 문경시장의 재선 공약사항중 하나로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향상 및 복지관 이용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장버스는 복지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교통편의서비스를 위해 활용하게 된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문경장복 이용 장애인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노후 차량 교체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셔틀차량을 운행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이날 고윤환 문경시장은 복지관 식당으로 이동하여,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배식봉사를 하면서 이들을 위로 격려했다.



장애인특장버사전달식에서 고윤환 문경시장과 복지관 이용 장애인 등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전국에 17개 시·도 협회와 230개 시·군·구 지회를 두고 있는 비영리 순수 장애인단체입니다.

또한 이 나라 500만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을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사업, 각종 교육사업, 장애인예술제 및 중증장애인배우자 초청대회, 장애인자립작업장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대한민국 장애인복지를 선도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모여 장애인복지를 꽃피우고 이들이 다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것으로 확신하며 '사랑 나눔 운동'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 회원구분

일반회원1 (2천원/월)	일반회원2 (5천원/월)	일반회원3 (1만원/월)
특별회원1 (3만원/월)	특별회원2 (5만원/월)	특별회원3 (10만원/월)
단체회원 (연 20만원이상)	기금회원	물품회원

■ 후원금 납부방법

-자동이체, CMS
-후원계좌 : 국민 822-01-0136-451
농협 033-01-174991

※ 후원금은 연말에 소득공제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후원신청

① 전화신청 : ☎02)796-4280

② 홈페이지 신청

협회 홈페이지(<http://www.kappd.or.kr>) 접속 - 나눔마당 - 후원신청

■ 2014년 10월 후원자 명단(가나다순)

강경민, 강성희, 김경아, 김경희, 김구환, 김동수, 김민영, 김순덕, 김영미, 김영진, 김인수, 김인숙, 김인순, 김정기, 김정태, 김정훈, 김정희, 김준곤, 김진호, 김천장애인종합복지관, 김현정, 김형욱, 김환경, 나금숙, 문민숙, 박규도, 박소연, 박종순, 박종형, 박현순, 반형만, 방순임, 배태환, 백금희, 서동녀, 선병욱, 안병현, 우지현, 원종빈, 유재복, 유종표, 육근록, 윤선민, 윤재환, 이남호, 이선화, 이순영, 이용란, 이은정, 이태훈, 임채종, 장교선, 장추자, 정다은, 정선용, 조기현, 조남희, 주명희, 주승윤, 주영래, 진미라, 최병철, 최선영, 하정미, 황보훈, 황정연, IBK경동분부

(후원자님이 후원에 주신 후원금은 500만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쓰여 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날말맞추기 CROSSWORD

1	2		3		4		5★
	6						
7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		20				21	

응모
요령

★에 있는 말로 단어를 조합해 우편엽서에 정답을 적어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해 상품을 드립니다.
<보내실 곳 (우: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22 이룸센터 3층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대외협력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필히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로열식 |

- 기쁨, 찬성, 환영을 나타내거나 장단을 맞추려고 두 손뼉을 마주 치.
- 놀이나 잔치 또는 그 밖의 일로 여러 사람이 모이는 일.
- 경상남도 진주의 남성동과 본성동에 걸쳐 있던 조선 시대의 읍성. 고려 말기에 왜구를 막기 위하여 쌓은 것으로 임진왜란 때의 항전지로 유명하다.
- 일정한 규칙 아래 기량과 기술을 겨루는. 또는 그런 일.
- 어떤 분야에 전문적 기술을 가진 사람.
- 일정한 지역에 주차하는 것을 허락하는 표.
- 실내의 온도를 높여 따뜻하게 하는 일.
- 육체나 물질에 대립되는 영혼이나 마음.
- 갑작스럽게 늘어남.
- 한 부분. 또는 전체를 여럿으로 나눈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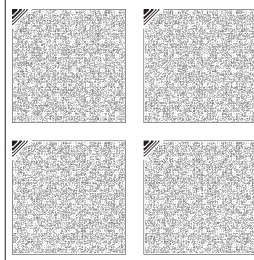
로 나눈 일.

- 입이나 조건 따위에 꼭 알맞은 성질.
- 컴퓨터 시스템 또는 정보통신 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
- 군대의 전투력을 이루는 무기·장치·설비. 또는 기술적인 준비와 차림.

| 세로열식 |

- 사진을 찍는 기계.
-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본능적인 사랑.
- 돈이나 물품 따위를 내주어야 할 시기.
-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게 가로로 길게 만든 의자.
- 기업을 경영하는 주인.
- 술을 담은 병을 통틀어 이르는 말.
- 외국을 여행하는 사람의 신분이나 국적을 증명하고 상대국

소리로 읽는 새보람



에 그 보호를 의뢰하는 문서.

- 자동차의 운행에 소요되는 지출 경비를 적은 장부.
-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신하(臣下)와 어버이를 해(害)치는 자식(子息) 또는 불충(不忠)한 무리.
- 목이 말라 물을 마시고 싶은 느낌.
- 사물의 규모가 급격하게 커짐.
- 으뜸가는 등급.
- 액체나 기체 따위에 압력을 가하여 세차게 뿜어 내보냄.

진단
의견

의사가 장애를 판정할 때 필요한 표준진단방법을 제시할 목적으로 장애판정 기준에 따라 분류한 장애의 등급.

10월호 정답

편의시설

당첨자

김혜미 서울 도봉구
정성오 경남 창원시
정규권 전남 목포시

다른그림찾기 DIFFERENT SEARCH

두 사진에는 3곳의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제27회 전국장애인종합예술제 음악부문 경연참가팀이 힘찬 사물놀이 연주를 펼치고 있다.



응모요령 : 2장의 사진 중 아래의 사진에 서로 다른 부분을 표시하고(2개 이상) 절취한 후, 우편엽서 뒷면에 붙여서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보내실 곳 (우: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22 이룸센터 3층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대외협력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필히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달 정답자 세 분에게는 가브리엘 천연공방에서 생산하고 있는 '천연비누'를 상품으로 보내드립니다.



가브리엘 천연공방의 '천연비누'

천연화장품 & 천연비누

당신의 피부...

피부가 상아 숨릴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자연을 생각하는 아인비의 모든 원료는 화학원료가 아닌,

자연 속의 식물에서 추출한 식물성 오일과 천연광물, 천연색소와 화장을 원료 기준으로 적합하고 검증된 원료만을 엄격히 선별하여 친환경적인 제품입니다.

자연을 힘으로 스트레스와 유해물질들로 지치고 손상된 당신의 피부에 생기를 불어넣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인비 비누는, 천연비누업계 최초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인증 및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인증 받은 제품을 취급하여 믿을 수 있습니다



기넨물, 달래물



천연화장품



천연비누



천연물류향



천연바디워시



천연주황세제

※가브리엘 천연공방 수익금은 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해 쓰여집니다.

문의
Tel. 930-0783 Fax. 930-0784
서울시 노원구 상계1동 1021-21
http://www.gabrielcenter.or.kr



장애인편의시설인식개선 캠페인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ATAC)에서는 2014년 편의시설인식개선을 위한 ATAC캠페인을 전개합니다.
편의시설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보다 절실하게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와 이슈들을 전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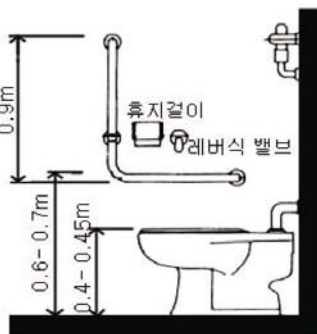


이번에는
장애인화장실을 가
보았습니다. 역시
청소도구적재 또는 창고로
유용하게 활용하는
경우들을 흔히
볼 수 있네요.



마구잡이로 손잡이를 설치하는 사례

손잡이를 잡고소변을 볼 수 있게
남성소변기 옆에 설치하는 손잡이를
양변기에 설치했네요!
대체 무슨 뜻일까요?
왼쪽 벽에 부착된 손잡이도 방향이 달라
지지받을 수 없도록 설치하셨고요!



일반적으로
양변기 오른쪽에는
회전식손잡이를
왼쪽에는
수평수직손잡이를
설치합니다.
물론 손잡이높이와
규격에 맞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